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

주 세 형** · 신 호 철***

< 次 例 >

- I. 문제 제기
- II.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 III. 근거 설정: 학습자 실태 조사 설문 결과의 활용
- IV. 각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 V. 결론

I. 문제 제기

제도권 국어과 교육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5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조차 어문 규범 교육이 병행되기도 할 정도로, 그 비중은 상당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급에서 어문 규범 교육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어문 규범 교육이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오랜 기간

* 본 원고는 2010년도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중,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집필 지침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본 원고의 내용 중 ‘용역’은 바로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를 일컫는다.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주저자)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교신저자)

실행되어 왔다면, 각 학교급별로 달성해야 하는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특히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의 위계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기 수행된 연구 중 교육과정 정책 연구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 정보를 근거로 이를 재해석하여,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용역’에서 실시한 학습자 실태 조사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각 학교급 학습자의 어문 규범 능력의 실태를 알아본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

Ⅱ.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주지하다시피, 문법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 총론의 성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4차 시기에는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실행되면서 국어학계의 개략적인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문법 교육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고, 6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에는 탐구 학습이라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써 문법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에 힘입어 국어과 수업이 전문화되었

는데, 그 결과는 어문 규범 교육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수업의 전문화는 결국,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화법 수업에서는 ‘이해력, 추론력, 공감력, 소통력, 내용 조직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표준 발음법’ 등은 실제 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쓰기 수업에서는 어문 규범 내용이 창의성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학습자에게 아예 규범을 신경 쓰지 말고 쓰기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여섯 영역 중 적어도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어문 규범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역할이 [표1]처럼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최미숙 외, 2008).

〈표 1〉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이 해야 할 역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규범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② 다양한 소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 자원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③ 자신의 언어를 대상화할 수 있는 주체적 언어 사용자를 길러 내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역할 |
|---|

그동안 문법 교육계는 문법 교육의 목표를 ①에만 한정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②·③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문법교육학 전반의 발전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어문 규범 교육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위의 세 개 역할 중에서, ①은 말할 것도 없이 문법 영역이 수행해 내야 할 핵심 역할이다. 규범에 대한 지식 학습은 초등 단계에서부터 강조

되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중등학교에서는 ①이 ‘보완’의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초등학교 현장에서 규범적 지식에 대한 학습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서도 어문 규범 교육의 비중이 더욱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문법’ 내용 체계표를 7차와 대조하며 살펴본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지 식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탐 구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	
맥 락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1) 본 원고 작성 시기에 고시된 2011 개정 교육과정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언급했듯이 본고는 학교급 위계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논리에 따라 학교급 위계 설정이 되어 있는 2011 개정 교육과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차이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어문 규범 교육의 위계성 관련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은 후일을 기약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영역 내용 체계〉

국 어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징 -국어의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이해와 탐구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에 대한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규범과 적용 -표준어와 표준 발음 	-맞춤법	-문법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에는 크게 네 개 범주가 설정되어 있다.

첫째, ‘지식’ 범주는 제7차 ‘국어지식’ 영역에서 ‘국어의 본질’로 일컫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7차에서 ‘실제’ 범주에 포함시켰던 국어의 ‘규범’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범주에 포함시켰다.

둘째, ‘탐구’ 범주는 7차에서의 ‘국어의 이해와 탐구’에 해당하며, ‘탐구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어 7차의 ‘국어의 이해와 탐구’ 범주와 동일한 취지에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 요소는 판이하다. 7차에서는 내용 요소들이 언어 단위별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활동의 방식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맥락’ 범주는 개정안에서 새로이 설정된 것이다. 문법 영역의 경우, 문법 목표와 관련된 ‘학습 상황 맥락’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현 연구 단계에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렵다.

넷째, ‘국어 사용의 실제’ 범주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글’이라는 언어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7차에서는 ‘실제’에서 ‘국어의 규범’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세 범주의 ‘지식과 태도’가 모두 ‘국어의 규범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의

‘실제’란, ‘언어 단위’이다. 이는 모든 활동이 ‘다양한 언어 단위로 구성된 자료’를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규범’이 내용 체계표에서 독립적인 범주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범주 내로 축소,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7차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취 기준의 수가 줄었다. 따라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 각 단원의 목표를 설정하는 현 교재 편찬 시스템에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어문 규범 교육의 위상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만 좁아진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심화 과정에서도 그 위상은 현저히 낮아졌다. 다음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심화 과목 『문법』의 내용 체계이다.

<p>국어와 얹</p> <p>(가) 언어의 본질</p> <p>① 언어와 인간</p> <p>② 언어의 특성</p>	<p>(나) 국어의 구조</p> <p>① 음운</p> <p>② 단어</p> <p>③ 문장</p> <p>④ 담화</p> <p>⑤ 의미</p>
<p>국어와 삶</p> <p>(가) 국어와 규범</p> <p>① 정확한 발음</p> <p>② 올바른 단어 사용</p> <p>③ 좋은 문장 표현</p> <p>④ 효과적인 담화 구성</p>	<p>(나) 국어와 생활</p> <p>① 일상 언어</p> <p>② 예술 언어</p> <p>③ 매체 언어</p> <p>④ 전문어</p>
<p>국어와 얼</p> <p>(가) 국어의 변천</p> <p>① 국어가 걸어온 길</p>	<p>(나) 국어의 미래</p> <p>① 통일 시대의 국어</p>

②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② 세계 속의 국어
③ 선인들의 국어 생활	③ 국어와 인접 분야

첫째, ‘국어와 읽’ 범주. 7차의 ‘국어 알기’ 범주 전체가 개정안에서는 ‘국어와 읽’ 범주의 일부로 포함, ‘국어에 대한 구조적 지식’ 비중이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어와 삶’ 범주. ‘규범’적 언어 생활 이외에도, 일상 언어·예술 언어·매체 언어·전문어 등의 다양한 언어 양상을 경험하는 범주로 설정하였다. 문법 과목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전체의 언어관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국어와 일’ 범주. 7차의 심화·선택 과목이었던 ‘생활 국어’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특히 다문화 관련 내용, 정보화 시대 국어의 발전 방향 등을 포함시킨 점을 유의한다.

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는 ‘국어와 읽’ 범주 및 ‘국어와 삶’ 범주 내의 ‘국어와 규범’ 정도만 포함하게 되어 있었으나, 7차의 심화 선택 과목이었던 ‘생활 국어’가 폐지되어 그 내용이 ‘문법’ 과목에 대거 편입되었다. 하나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어문 규범 교육의 비중은 ‘문법 교과서에서 한 단원 이상 할애하기는 어려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게다가 한 단원 정도를 할애하여 집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원은 궁극적으로 ‘쓰기 교육의 목표’와 닿아 있어서 본격적인 규범 교육 내용으로 채워지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문법 과목은 독서와 통합하여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었으니 규범 관련 내용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원인을 진단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국어과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국어 능력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국어 능력’ 속에 어문 규범 능력은 아주 소략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

국어교육계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서인지, 당연히 선결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첫째, 어문 규범 교육의 단독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단독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나머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둘째, 단독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획득해야 할 ‘어문 규범 능력’이 무엇인지도 밝혀놓은 문헌이 전무하며,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어문 규범 능력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문 규범 교육의 대상자인 학습자를 상정조차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넷째, 현행 어문 규정집의 내용을 간략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어문 규범 교육의 전부로 간주되어 왔다.

Ⅲ. 근거 설정: 학습자 실태 조사 설문 결과의 활용

그동안 국어교육사에서 어문 규범 교육이 차지한 비중을 생각해 볼 때, II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은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사항을 당장에 해결하려고 해도, 각 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양미경(2008: 198-199)에서는 교수 학습 내용 구성 순서에는 교육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논리적 순서란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 혹은 원리들을 앞세우는 식의 절차로 학계의 논리와 동일하다. 반면 교육적 순서는 학습자의 질문이 발전되어가는 계열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국어교육계에서는 교육 내용 요소의 선별 및 배열시 ‘교육 전문가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직관적 중요도’를 유일한 근거로 삼아 왔다. 엄밀히 말해 교육 내용이 ‘논리적 순서’를 우선하여 조직되고 위계성이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문 규범 교육 분야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위계 판단은 ‘논리적 순서’와 ‘교육적 순서’를 적절히 결합하여야 할 것이다. 어문 규범은 나름대로의 학적 논리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교육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양미경의 언급대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교육 내용을 조직하거나 배열한다면, 최종 산물로서의 지식 체계가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 딱 짜인 모습으로 제시되기에, 결국 학습자 스스로 지니고 있는 ‘나름의 지식 체계, 인지 구조나 지향성’ 등과는 무관하게 되기 때문이다(양미경, 2008: 199).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순서’와 ‘교육적 순서’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어문 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교육적 순서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된 바가 적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은 교육적 순서에 해당하는 논리가 될 것이다. 즉, ‘어문 규범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가 그것이다.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하나씩 축적된다면, 교육 전문가는 논리적 순서와 교육적 순서를 적절히 결합하여 학습자의 지식 체계와 무관하지 않은 교육 내용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의 교과 전문성은 ‘언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면을 잊지 않았다.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한답시고 ‘학습자 집단’만을 별도로 연구해서는 국어 교재를 편찬하는 데에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 국어교육을 위해 수행될 조사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 즉 언어 자료’에 대한 교육적 판단 근거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본 것이다.

즉, 어문 규범 교육이라는 특성상,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어휘 목록’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특정 어휘 목록을 규범과 관련하여 판단하게 된다.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해당 목록이 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이하 내용에서는 이를 ‘중요도’로 언급한다), 또한 해당 목록을 규범과 관련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이를 이하 내용에서는 ‘이해도’로 언급한다)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이해도는, 현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의 ‘논리적 순서’가 어떠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을 하게 해 줄 것이다. 중요도와 이해도 조사는 설문 조사의 형태로 실시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IV. 각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IV장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학교급 세 단계’에 대응시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먼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서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의 ‘논리적 순서’를 각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 설문 조사 결과에서 ‘교육적 순서’를 읽어내면서 교육과정상의 논리적 순서가 어떠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지 비판하였다. 이로써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성할 논리를 마련하였다.

1.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이하 이어지는 표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초등학교 전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전학년 <문법> 영역에는 모두 20개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1학년~4학년까지는 3개의 성취 기준이, 5학년과 6학년에는 각각 4개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이 중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취 기준은 총 6개이다. 1학년에서는 3개의 <문법> 성취 기준 모두가, 2학년에서는 3개의 <문법> 성취 기준 중 2개가 어문 규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학년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 아예 없다가, 4학년에서야 한 개의 성취 기준이 배정되었다. 이후 5학년과 6학년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성취 기준은 없다.

<p>1학년 -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기 ○ 한글 자모 정확하게 읽기 ○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소리 내어 읽기 ○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르기
<p>1학년 -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와 어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 한글 자모,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기
<p>1학년 - (3)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에 쓰인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 알기 ○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에 맞게 문장 읽기
<p>2학년 - (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표준 발음 알기 ○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 가지기
<p>2학년 - (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 알기 ○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p>4학년 - (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이해하기 ○ 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원리가 과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언급하고 말아야 하는 내용인지 재고를 요한다. 개별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익히는 지식들이 파편화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식들이 모두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원리를 익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통합적으로 인식 되도록 하려면,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가 문면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초-1-(2)와 같은 목표가 나선형으로 반복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 분량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학교급별로 상위 성취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2학년에서 한글맞춤법 규정과 표준 발음법 규정이 있음을 알도록 했다면, 적어도 어문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알도록 하는 과정 역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셋째, 표준어와 방언의 기능에 중점을 둘 뿐,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규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초등학교 단계 전체에서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한계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논리적 순서’와 비교해 볼 때 학습자의 교육적 순서는 어떠한 실태를 보이고 있을까. 본 용역에서 실시했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초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어문 규범 목표와 내용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어문 규범	전체	초등3	초등5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이 해 도	전체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중 요 도	전체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	44.1	34.6	42.6	33.7	42.9	57.7	53.1

위 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의 이해도 순서는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법 - 한글 맞춤법 - 표준 발음법’ 순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나, 초등학생들이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중요도에 대한 수치를 고려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집단의 크기가 크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로써만 판단한다면, 3학년과 5학년 모두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용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중요도’는 전문가가 평정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습자의 ‘요구’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교육학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다.’는 것은, 학습자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교수 설계자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자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교수 설계자의 역할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교육 내용에서 삭제할 수 없으며, 중요도가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 내용의 양을 조절하거나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구 내용들이 국가 수준 국어과 교육과정에 당장 반영되어, 체계적인 어문 규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포함해야 할 ‘필수 내용’이 많아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어과 시수가 줄어들고, 시대적 정황에 맞추어 교육 내용의 적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인해, 교육 내용은 오히려 더욱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될 것이라는 점은, 안 그래도 체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어문 규범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를 품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을 연수하는 것이다. 향후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 수준의 자치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 시, 각 학교의 국어과 교사가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어문 규정 항목을 지정, 배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용역에서 정리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

- 각급 학교 단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어문 규범 분야'를 지정하되 그 기준은 '이해도'와 '중요도'로 정한다. '이해도'는 '어문 규범 항목'에 대해서 파악하고, '중요도'는 '어휘 항목'에 대해서 파악하여 선정한다.
- '이해도'는 '어문 규범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력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의미한다. '이해도'에 따라 '원리를 탐구해야 할 분야'를 정한다.
- '중요도'는 '어휘 항목의 중요성, 일상 생활에서 빈도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요도'에 따라 '익혀야 할 어휘 항목'을 정한다. 이때 향이나 절의 균형성도 파악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 첫째, 어문 규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강화한다.
 - 둘째, 어문 규정의 전체 체계를 이해한다.
 - 셋째,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들의 정확한 용법을 익힌다.

- 역대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중요도가 높은 교육 내용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주세형(2008)에 의하면,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은 '국어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법 수업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잘못 쓰는 언어를 바로 잡아 주는 수업', '바른 말 고운 말을 가르치는 수업', '맞춤법을 정확히 익히는 수업', '국어 순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의 상식으로는, '정확하고 규범적인 언어를 배우는 수업'이 초등 문법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비 교사 본인 역시 정확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고백한다는 것이다. 본 용역에서 실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아도 특히 ‘표준 발음법’ 같은 어문 규범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확하고 규범적인 언어’를 구사하려는 목적만으로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해 온 것이, 학습자의 이해도를 고려한다면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확실히 강화한 뒤 중요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어휘 항목을 신중히 선정 언어 자료를 보는 안목과 기초적인 탐구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이하 이어지는 표에서는 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중학교 전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전학년 <문법> 영역에는 모두 15개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7학년~9학년 모두 각각 5개씩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이 중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9학년의 두 번째 성취 기준이 유일하다.

—9학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2)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특성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2007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중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중학교 단계에서는 문장 쓰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담화 텍스트 수준의 글 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문장 쓰기 단계를 완성한 초등학교 시기와 연계되지 않는다.
-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 하나만이 등장한다.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본 용역에서 실시했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중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따라, 중학교 어문 규범 목표와 내용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어문 규범	전체	초등 3	초등 5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이 해 도	전체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중 요 도	전체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	44.1	34.6	42.6	33.7	42.9	57.7	53.1

위 표에 의하면, 중학생의 이해도 순서는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표준 발음법’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초등학생들과는 외래어 표기법과 한글 맞춤법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표준 발음법은 초등학생들과 똑같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힌다

는 것이다. 중요도 순서는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 순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학생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수치가 다른 수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정리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에 따라 중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 중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어문 규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한다.
 - 둘째, 초등학교 단계에서 익힌 어문 규범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어문 규범의 각 분야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제대로 탐구한다.
 - 셋째, 초등학교 단계에서 익히지 못한 지식을 익힌다.
-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많이 어려워하지 않으므로,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 많이 혼동하는 어휘 항목을 선정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한글맞춤법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태도와 관련된 내용 항목보다는 지식 탐구를 유도하는 교육 내용을 많이 포함시킨다.
 -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을 어려워하는 데에다, 동시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탐구 의욕과 학습 의욕을 증진시킨다.

- 표준 발음법의 원리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한글맞춤법 중 ‘소리와 관련된 내용’을 연관시켜 지식과 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 대한 원리 학습을 충분히 한다면 향후 얼마든지 그 원리를 익힐 수 있으므로, ‘중요도’에 근거하여 필수적인 어휘 항목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도 좋을 것이다.

3.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이하 이어지는 표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10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10학년에서 끝나기 때문에, 11학년과 12학년의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2개이다.

—10학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음 법칙, 모음조화, 구개음화, 설측음화, 경음화, 탈락 현상 등의 음운 규칙 이해하기 ○ 국어의 음운 체계와 변동 규칙에 따라 바르게 읽기 ○ 음운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알기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사용하기 ○ 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 기르기

위의 내용을 볼 때, 현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따라 중학교에서 익혔던 음운 체계 관련 지식을 고등학교에서 심화하는 의미도 찾을 수 있겠지만, 모든 학교급에서 어문 규범 관련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에서도 ‘(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라는 성취 기준이 또 설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가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가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재에서 ‘원리’를 강조하여 교육 내용이 선택되리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전반적으로 어문 규범 교육을 체계화한다면, 고등학교 단계는 어문 규범 능력의 ‘완성’ 단계이다. 이렇게 볼 때,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원리를 탐구하고 종합하는’ 교육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본 용역에서 실시했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따라, 고등학교 어문 규범 목표와 내용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어문 규범	전체	초등3	초등5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이 해 도	전체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중 요 도	전체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	44.1	34.6	42.6	33.7	42.9	57.7	53.1

위 표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이해도 순서는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표준 발음법’ 순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중학생의 이해도 순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 다만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중요도 순서는 ‘표준 발음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법’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낮지만, 이전 학교급 학생 집단과는 달리 표준 발음법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수치의 차이가 그다지 없어 집단이 달라지면 그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중학생 집단과는 다르게 표준발음법의 상대적 위상을 높이 잡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언어 생활을 타인이 평가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대면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정리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지식과 태도를 완성한다.
- 둘째, 어문 규범 각 분야에 대한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셋째, 어문 규정 전체에 대한 체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
-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모두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구성한다.
-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리까지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많이 구성한다.
- 어문 규정 각 절, 각 항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구성한다.

V. 결론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어문 규범 내용은 어김없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학습자의 실제 어문 능력에 대한 정보나 위계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이, 학교급에 따라 성취 기준이 설정되었다. 특히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년군에 따라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이번 교육과정 역시 현장에서 실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정책 자체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수시 개정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그 한계가 더욱 명백해졌다. 이에, 본격적인 교육과정 정책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이를 해석하는 연구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 수행된 연구 중에서, 교육과정 정책 연구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많은 통계 정보를 재해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더 광범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학교급에 따라 어문 규범 교육이 어떠한 차별성을 지녀야 하는지 객관적 근거에 터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이 논문은 2011. 10. 30. 투고되었으며, 2011. 11.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1. 12. 9.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국립국어연구원(2002),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04), 『어휘별 규범 해설』,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2005),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2007ㄱ),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연수 교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7ㄴ),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상반기 교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7ㄷ),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하반기 교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7ㄹ),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박이정.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박형익(2008), 『한국 어문 규정의 이해』, 태학사.
- 신호철(2008), 「문법 교과서에서 ‘말소리’ 단원의 양상과 문제」, 『국어국문학』 제150집, 국어국문학회, pp.53-78.
- 양명희(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양미경(2008),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과학사.
- 이관규(1995),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상치점」, 『새국어교육』 제5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pp.37-57.
- 이관규·신호철(2011),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성격과 어휘 선정 원리」, 『문법 교육』 제14집, 한국문법교육학회, pp.39-71.
- 이관규 외(2009),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관규 외(2010ㄱ),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이관규 외(2010ㄴ),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관규 외(2010ㄷ),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집필 지침서』,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은정(1990), 『(최신)표준어·맞춤법 사전』, 백산출판사.

- 이은정(1996), 『남북한 어문 규범 고찰』, 백산출판사.
- 이희승·안병희(1994), 『고친판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 『증보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정혜승(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점검」, 『우리말교육현장 연구』 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163-188.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세형(2006), 「문법 교재 개발의 모형」, 『문법교육』 제5집, 한국문법교육학회, pp.113-136.
- 주세형(2008), 「교실 문화 개선을 위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 개발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제38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67-104.
- 최혜원(2000),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혜원(2001),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혜원(2002),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I』,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혜원(2003),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V』,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main.do>

<국문초록>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주세형 · 신호철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어문 규범 내용은 어김없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실제 어문 능력에 대한 정보나 위계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이, 학교급에 따라 성취 기준이 설정되었다. 특히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년군에 따라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은 찾기가 어렵다.

교육과정 개정이 수시 개정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교육과정 정책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이를 해석하는 연구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기 수행된 각종 어문 교육 및 어문 정책 연구 중, 교육과정 정책 연구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재해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더 광범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학교급에 따라 어문 규범 교육이 어떠한 차별성을 지녀야 하는지 객관적 근거에 터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어문 규범, 어문규범 교육,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위계성

<영문초록>

Reconstitution of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s
in Eomunkyubeom

Joo Se-Hyung · Shin Ho-cheol

The 2011 revised Korean language a curriculum surely contains the contents of Eomunkyubeom. As usual, however, the levels of achievement are set according to graded school system without information of learners' accurate language abilities or criteria of hierarchy.

Especially in case of 2011 revised curriculum, although criteria based on class levels are provided, saying it is hard to find supporting evidence points out that this curriculum will have many difficulties to be practiced on the ground. As is generally known, this problem lies on the limitation of revised a curriculum policy itself. The limitation becomes more obvious as the policy altered frequently.

Hence, studies on collecting and analysing critical evidence for policy-making as well as keen research on a curriculum policy must be conducted intensively.

Furthermore, it seems necessary to re-analyse statistical data which are able to provide evidence for a curriculum policy among existing studies.

Though wider range of exploration is required, this study is meaningful since it discusses what kind of differentiation Eomunkyubeom education should have based on objective evidence.

[Key words] Eomunkyubeom, Eomunkyubeom education, Educational objectives, Educational contents, hierarchy